

## 베트남, 고위 인사의 연이은 사임에 정치적 안정성 위협

- 2024년 3월 보 반 트영 국가주석(권력서열 2위)이 사임한데 이어 4월 26일에는 브영 딘 후에 국회의장(권력서열 4위)이 사임함.
  - 2023년 최연소 국가주석에 오른 보 반 트영 국가주석이 3월 20일에 사임, 최단기 국가주석이라는 불명예를 얻음.
  - 브영 딘 후에 국회의장을 약 20년간 보좌한 최측근 팜 타이 하 국회부위원장 겸 국회의원 보좌관이 건설·부동산 기업 입찰 관련 비리 혐의로 4월 20일 체포됨.
  - 이후 ‘관리·책임을 맡은 기관 또는 직속 부하의 심각한 부패 및 부정행위에 따른 해당 장의 해임’이라는 규정(41-QD/TW 2021)에 따라 브영 딘 후에의 책임이 논의됨.
  - 4월 24~25일에는 정부 온라인 페이지상 국회의장의 신변 변화를 추측할 수 있는 징후(3월 국가주석 사임 직전과 유사)가 포착되어 브영 딘 후에 국회의장의 사임이 예상되었으며 26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브영 딘 후에 국회의장의 사임을 발표함.<sup>1)</sup>
    - 중앙위원회는 3월 보 반 트영 국가주석의 사임 때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사임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‘규정 위반과 단점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공산당과 국가, 자신의 평판이 영향을 받았으며 당 규정과 법에 부합한 책임을 졌다’고 성명을 공개함.<sup>2)</sup>
    - 베트남은 ‘4개의 기둥’이라 불리는 최고권력 4인의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데, 한 달 여간 국가주석, 국회의장의 사임으로 두 명만 남게 되었으며 당 최고 정책 결정권 보유한 총 18명의 당 정치국 위원 중 13명만이 남게 됨.
- 고위 인사의 연이은 사임은 성역 없는 반부패 운동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차기 서기장 자리를 둘러싼 베트남 공산당 내 권력 투쟁의 결과로 보는 의견도 제시됨.
  - 2011년 이후 3연임 중인 응웬 푸 쯙 공산당 서기장(80세, 권력서열 1위)은 2016년 첫 연임 이후 ‘불타는 용광로’라 불리는 반부패 운동을 진행 중인데, 2022년 고위급 인사 27명이 징계를 받는 등 반부패 활동이 확산됨.
  - 2022년 12월 두 명의 부총리가 사임한데 이어 2023년 1월 응웬 쑤언 폭 국가주석이 사임했으

1) 브영 딘 후에 국회의장의 4월 초 중국 방문 시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 인사가 시간을 내 대면할 만큼 차기 공산당 서기장이 확실시 되었으며 사임 당일 오전에도 베트남전 종전 49주년 행사에 참석해 이러한 사임 결정은 갑작스런 결정으로 평가되며 사실상 축출로 보는 의견도 존재함(Voice of America, Nikkei).

2) 토 램 공안부 장관이 몇 주 간 브영 딘 후에 국회의장의 범법행위 증거를 제시하고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브영 딘 후에가 받아드리지 않았으며 이에 토 램 장관은 팜 타이 하 체포를 시작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도 존재함(rfa.org).

며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17개월 간 총 6명의 고위 지도자가 사임했는데, 이는 잘못과 부정에 대한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함.

- 최근 고위 지도부의 연이은 사임은 응웬 푸 쯙 서기장의 건강악화 및 임기와 연계해 당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됨.
- 응웬 푸 쯙 서기장은 고령에도 예외적으로 3연임하였으나 2019년 건강 이상으로 입원, 2023년 말 20여일의 공백 등 건강악화설이 불거져 이번 임기가 사실상 마지막 임기로 평가됨.
-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서기장 유력 후보로 꼽히던 보 반 트영 국가주석과 브영 딘 후에 국회의장의 연이은 사임은 차기 서기장을 위한 권력 투쟁의 결과로 보고 반부패 운동은 정적을 노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몰락했다는 평가도 존재함.
- 반부패 운동을 지휘하던 토 램 공안부 장관 또한 차기 서기장 후보로 급부상 중인데, 현재 건강이 허약한 응웬 푸 쯙 서기장보다 실세라는 평가와 함께 나이(67세)와 평판, 국회의 지지가 낮을 가능성에 따라 서기장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함.

□ 연이은 고위 인사 사임에 따라 베트남 투자의 매력으로 꼽히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투명한 정책과 인사를 통해 의문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.

- 풍부한 노동력, 젊은 인구구조,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에 따라 많은 투자가 지속된 베트남의 최근 연이은 고위 인사의 사임에 따라 투자 매력 중 하나인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됨.<sup>3)</sup>
- 최근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, 격하고 광범위한 내분 등으로 평가하며 2025년 1월 개최될 전당대회까지 내분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함.
- 급속한 시장 개방을 경계하는 보수주의자인 응웬 푸 쯙 서기장은 시장 친화적 세력의 세력을 외면했는데, 경제학 박사이며 중앙경제위원장, 감사원장, 재무장관, 경제 부총리를 역임한 브영 딘 후에 국회의장의 사임으로 당 지도부의 경제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함.
- 현재의 반부패 운동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권력 분립과 강력한 법치주의, 언론의 자유, 당에 대한 감사 등 투명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.
- 특히 서기장 선임 관련 투명한 절차와 규정의 부재가 최근 고위 인사의 사임의 원인으로 지적됨.
-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차기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구성해 대외 개방 지향의 베트남의 성장을 지속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.

김제국

3) 3월 진행된 베트남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의 650명의 기업인 대상의 설문 결과 외국 기업은 주로 정치적 안정성을 베트남 투자 매력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(Voice of America).